

도내 초등학교에 영어놀이터 조성

전북교육청, 전주 동신초·군산 미성초 등 8곳... 교육부 2500만원씩 지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즐겁게 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 영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영어놀이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도내 초등학교 8곳에 사업비 2500만원씩 지원한다.

해당학교는 전주 동신초, 전주 자연초, 군산 미성초, 이리 고현초, 정읍 동신초, 태인초, 완주 봉서초, 임실 오수초 등이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규구축 또는 교내 기존시설을 활용해 영어놀이터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촉진하는 학습·놀이·쉼의 공간이자, 학교·지역사회에서 영어교육, 정보 공유와 발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공간 구조 혁신을 통해 놀이와 학습, 휴식과 창의적 활동 등이 가능

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4일 8층 회의실에서 초등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회의를 통해 영어놀이터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문대 입시 일정도 변경 수시 2주·정시 1주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일선 고등학교 학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4년제 대학에 이어 전문대학도 입시를 수시모집 2주, 정시모집 약 1주간 연기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을 이 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연기된 바 있다. 성적통지일 역시 12월9일에서 12월23일로 변경됐다.



전북교육청과 원광대학교가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박맹수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1·2차 접수기간은 모두 2주간 미뤄졌다. 1차 모집은 당초 9월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이었으나 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21일로 조정됐다. 2차 모집은 기존 11월9~23일에서 11월23일~12월7일로 바뀌었다. 수시 합격자 발표기한은 12월15일에서 12월27일로, 등록기한은 12월16~18일에서 12월28~30일로 각각 조정됐다.

전북교육청-원광대, 교육발전 '손잡다'

지역인재 육성·사회발전 협력

전북교육청과 원광대학교가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박맹수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제 구축으로 유치원·중등교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유치원·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상호혁신 △교수·학습·교육실습과 교육봉사 지원 및 교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 △수업 운영의 현장성 및 전문화를 위한 상호교육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교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원광대학교가 교육공동체로서 유치원 교육을 비롯해 중등·고등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맹수 총장은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교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원광대 석사과정 김지환씨 대한건축학회 우수졸업논문상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김지환(사진) 씨가 대한건축학회 우수졸업논문전에서 학사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세진 교수 지도를 받은 '굴패각을 잔골재로 사용한 고로슬래그 미분말 대량사용 모르타르의 유동성 및 강도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친환경 발전을 위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는 굴패각을 잔골재로 사용한 모르타르의 역학특성에 관한 논문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건강 지킴이’ 체육회로”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 맞춤형 체육서비스 제공 노력



“완주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 지킴이’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체육을 통해 책임 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완주군의 실정에 맞게 이른바 맞춤형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노인층이 많은만큼 이 회장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등 노인 체육 활성화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노인들이 건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성도 증대된다”며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 위상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체육단체 재정비 통한 내실 강화 ▲종목 지원을 통한 참여도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최근 완주 삼례여중 축구팀이 해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학교체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완주군과 완주군교육지원청 등이 톡톡 뭉쳐야 한다”며 “지역이 함께하면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자료 수집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바로 체육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체육이 활성화되는 만큼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며 “완주군체육회 발전뿐만 아니라 체육을 통한 군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체육은 취미를 넘어 이제는 복지”라며 “완주군이 체육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제2의 김연아·손흥민으로 키운다”

전북체육회, 2020 월드스타 육성사업 대상자 4명 선정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우수 선수 육성에 나섰다.

1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제1차 학교체육위원회를 열고 2020 월드스타 육성사업 대상자로 총 4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우수 꿈나무를 조기에 찾아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배드민턴 김태림(생명과학고)과 김유정(성심여고), 테니스 조세혁(금암초), 수영 이서아(서일초) 등 총 4명이 육성선수로 선정됐다.

현 배드민턴 주니어 대표인 김태림과 김유정은 전국 랭킹 상위권이며, 각종 대회에서 월등한 실력을 뽐내고 있다. 테니스의 조세혁은 초등부 랭킹 1위이며 지난해 열린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발

전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신체조건과 기량이 우수한 수영의 이서아는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다. 이를 증명하듯 2년(2018~2019) 연속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전북체육회는 이들에게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접목,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용품과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올림픽 또는 세계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대형 스타선수로 육성에 국위선양 및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제2의 김연아, 손흥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